

## 기축(己丑)년을 맞이하며

慧隱 印喆煥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진 와중의 해를 보내고 새해 햇빛이 비치는 기축년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만복을 빌며 마음의 평화와 몸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테크놀러지 혁신의 시대에 가뜰이나 세계경제의 불황이 겹치니 외부의 물리적인 격변하는 자극에 대항하여 자기를 보존하려면 정신적 생활 (spiritual life)을 제창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인데 여기에 있는 (being present) 즉, 과거에 억매지 말며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이 순간에 집중하여 지내자는 것이지요. 모든 생물체를 위시하여 무기물까지도 우주의식을 본받아 수용하고 타인과의 좋치 않은 관계도 아량을 베풀어 관용하는 처세가 필요하겠읍니다.

MDW를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날조로 미국민과 세계 각국을 속이고 이라크를 침공하여 우방 국가조차 반미 성향으로 돌리고, 몇십년 만에 클린턴 정부가 흑자로 만들어 놓은 연방정부 재정을 유사 이래 미증유의 적자를 내 후손들에 멩에를 물려 주고, 네오콘들의 독선 외교를 자행하여 일부 비평가들의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을 로마 제국 패망 전례 까지 들어 흑평을 받으며 물러나는 부시 정부를 변화의 기빨을 쳐 들어 역대 선거 최고 득점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바락 오바마에게 당면한 경제의 안정과 체제는 다르지만 일본의 명치 유신에 버금가는 월 스트리트 재벌들의 횡포를 포함한 일대 변혁을 기대해 봅니다.

- 끝 -